

2005년 일본하수도협회(JSWA) '하수관거 시공 및 유지관리과정' 해외연수 참관

# 하수관리시스템 선진국, 일본을 가다

글 전영호 팀장 \_ 경기도 광명시 하수도시설팀







연수를 위해 떠나는 날 새벽,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어둠은 가시고 새벽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었다. 공무원생활 만 27년, 두 번째 해외연수라는 단어가 괜스레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른 아침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인솔자를 포함한 8명과 인사를 나누고 뻑뻑하게 채워진 일정표를 받아들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으로 묵직한 가방을 왼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



시바우라물재생센터 앞에서 한국연수단



일본의 하수도 유지관리는 시스템화된  
유지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 (사후관리비의  
1/3 수준이라 함) 한다는 것이 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협회나  
환경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리타공항에 내리면서 진행된 일본에서의 첫 일정은 일본하수도협회(JSWA)에서의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처음에는 잔뜩 긴장하게 되었고, 겨우 2~3일 일어책을 보고 온 것이 후회막급이었다. 다행히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인솔자 위미경님과 장동혁님의 통역과 환영회에서의 술 한 잔으로 어느새 긴장도 풀리고 거리감 없이 쉽게 해외연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둘째 날부터 8시에 모여 동경에서의 교육을 위해 전철통학을 시작하였다. 오후 12시반 까지 교육을 받고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반 까지 황궁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하곤 했는데, 역사가 깊고 우리보다 문화유산이 잘 가꾸어져 있어 놀라웠다. 그 중 에도시대에 쌓아놓았다는 성곽의 석축은 너무나 완고해 기억에 남는다. 1700년경에 쌓아 놓았다는 이 석축의 한점 흐트러짐 없는 높리와 길이에서 일본인들의 원칙주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을 맞춰 교육장에 들어와 오후 4시 반까지 이론과 질문답변의 시간이 이어졌다. 물론 퇴교 후에는 일본 거리 곳곳의 하수도 시설물을 직접 보기 위해 부지런히 일본 거리를 헤매었다. 내가 맡은 업무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라 특히 맨홀뚜껑에 관심이 많았다. 일본의 맨홀 뚜껑은 우리와 격이 달랐다. 우리는 맨홀을 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본의 맨홀뚜껑은 관리가 편하게 되어있는 듯했다.

알고 보니 일본에는 도로에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모든 시설들이 들어갈 위치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정해진 자리 이외에는 시설물 매설이 불가하고 한번 매설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남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홈관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고 교체나 보강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내구연한은 78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설물마다 먼저 매설한 것이 주인이고 같은 라인에서도 교차하고

다른 시설물의 무단횡단에 다른 시설물 손괴로 특히 보수와 민원 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예산 등의 사유로 민원이 생겨야 처리하는 사후관리 체제인데 반해, 일본의 하수도 유지관리는 시스템화 된 유지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사후관리비의 1/3 수준이라 함)한다는 것이 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협회나 환경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하수관거의 시공시 자재품질관리와 시공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시설관리 주체별 위치지정이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이제는 우리경제 규모나 여건상 지금부터라도 법적 제도화 방안이 요구되어져 보인다.

예산부족을 사유로 대장작성, 시가지관에 대한 조사제외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거별 관리의 체계화(우수량 및 관거의 규모결정 노후도 세분화 등 필요)도 요구되었으며, 하수도분야 근무자의 전문화(장기근무자의 인사우대 등 - 격무부서로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과, 원리원칙주의를 고수하는 일본인들의 업무습관을 본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11일간의 연수는 쉴 틈 없이 진행되는 교육과 시설견학, 그리고 문화체험으로 이어졌다. 매일 아침 4시에 기상하고 밤 12시 이후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몸은 지쳐있었지만, 일본 하수도시설 및 시스템 견학과 더불어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기간동안 한국연수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아낌없는 배려와 후원해주시는 양국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 동고동락하며 몸살감기에도 불구하고 안내와 통역 등 여러모로 밤낮없이 고생하신 위미경님, 일본하수도협회 나가이 과장님, 코세키상께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식사하시느라 고생하신 보령시 신광호 소장님과, 항상 진지하게 연수에 임하시는 대구광역시 박영호님, 그리고 과묵하신 가운데 저의 단점을 보완토록 충고해 주신 설세영님, 툭툭 튀는 유머와 위트로 힘들 때 웃음을 선사하신 진현수님, 유창한 일어와 술 고플 때 항상 술친구 되어주신 장동혁님, 밝은 웃음과 환한 미소로 대한민국의 미를 대표하신 고양시 정선화님. 모두들 좋은 인연과 열린 마음으로 다음 기회에 또 뵈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